

여수산단 AI 기술 결합 생산 고도화

여수시 'AI 선도프로젝트' 선정 석유화학분야...국비 85억 확보 친환경 산단·탄소배출 저감 기대

인공지능(AI) 자율제조를 통한 생산성 극대화로 여수산단의 위기를 극복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의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석유화학분야에 선정돼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계기로 산단의 생산성 향상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3일 밝혔다.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석유화학·자동차·반도체 등 12대 주력산업의 제조 공정에 AI를

결합하여 생산 고도화와 자율화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여수시와 전라남도도는 GS칼텍스(주)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경희대학교 등과의 협업에 힘입어 선정됐으며,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방비 85억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0여억원으로 친환경 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8이년 사업에 GS칼텍스(주)는 AI 자율제조 플랫폼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구축된 플랫폼으로 제조 전 공정별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생산조건과 생산비율을 제어하고 생산 에너지 절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도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중소·중견기업들

이 AI 기반 자율제조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지원해 친환경 산단 환경 조성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제정세와 산업여건 변화로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강력한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여수국가산단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AI 자율제조' 확산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200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26개 선도프로젝트를 지정하여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어린이집·유치원·아동센터 위생교육

구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난 한 달 동안 구례군 관내 등록시설인 어린이집·유치원·지역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 위생·영양교육 및 요리 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구례군의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한 위생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자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했다. 손 씻기가 필요한 상황을 비롯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요리 전 위생 관리의 기본인 손 씻기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안전한 요리 도구를 사용해 직접 요리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 걷기왕, 체중 14kg·체지방 13kg 줄였다

시, 4월부터 6개월간 걷기대회 참여 시민 1720명 중 101명 선발

'순천시 걷기왕' 6개월간 체중 14.2kg·체지방 13.2kg 감량. 순천시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시행했던 '시민 걷기왕 선발대회(이하 걷기왕 대회)'의 최종 선발자 101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걷기운동 활성화 프로젝트로 시민 총 1720명이 참여한 걷기왕 대회 결과, 체지방과 체중을 가장 많이 줄인 1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걷기왕 대회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누적 걸음 수 120만보 이상을 기록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회 전·후의 인바디 측정을 통해 최다 감량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인바디 측정 결과, 체지방량 3kg 이상 감량자 50명과 체지방·체중 동시 감량자 51명이 걷기왕에 오르게 됐다. 이번엔 선정된 걷기왕 101명의 감량 체중은 총 428kg이며, 감량 체지방은 334kg이다. 이중 6개월간 체중 14.2kg과 체지방 13.2kg을 줄인 시민이 1등을 차지, 걷기의 일차 결실을 맺었다.



순천시 시민 걷기왕 선발대회에서 6개월간 체중 14.2kg, 체지방 13.2kg 감량한 시민이 1등을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제2회 웰니스 노르딕 워킹 대회 모습. <순천시 제공>

대회 참가자들은 6개월간 목표 걸음수 120만보 달성을 위해 매일 운동하고, 생활습관도 바꾸는 '자신과의 싸움'을 지속해왔다. 비록 최종 선발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도 건강한 삶을 위해 도전했다는 의미에서 만족해하는 반응

이였다. 대회 기간 중 참여자들은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순천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걷기 챌린지·노르딕 워킹교실·다양한 걷기 행사 등을 지원받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 꿈꾸는 예술터' 막바지 개관 준비 한창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소양 공간 16일 예술터 광장서 축제형 개관식

고흥군과 고흥군 문화도시센터는 전남 유일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고흥 꿈꾸는 예술터의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고흥 꿈꾸는 예술터'는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유흥공간을 활용하여 조

성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이름이다. 1층 '예술정원 그림 책방'에서는 고흥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목공 및 공예 작업이 가능한 '손 작업장'이 마련되어 있다. 2층 '다목적실'에서는 몸의 감각에 집중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3층 '미디어 아트 드로잉실'에서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체험이, '소리 작업장'에서는 음악 작업을 '예술과 기술랩'에서는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

이 제공된다. 개관식은 오는 16일 오후 3시 꿈꾸는 예술터 광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참여자와 함께 즐기는 전시·축제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관식 이후에는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 체험형, 지역 특화형, 청소년 예술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꿈꾸는 예술터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 매티재 여순사건 진실 드러날까

유해 발굴 작업 다음달부터 시작

광양시의 숙원사업인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시와 여순사건 광양유족회가 지난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요청했던 진상면 매티재 유해발굴작업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12월에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31일 밝혔다. 발굴지역인 매티재는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지형이 변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매티재는 여순사건 희생자 뿐만 아니라 하동군 보도연맹사건 관련자들이 처형당한 장소이기도 하다. 이로써 매티재 발굴작업에서 희생자의 유골이 발견되면 76년만에 유족의 품에 돌아가게 되며, 그간 묻혀있던 참혹한 사건의 진실이 세상

에 드러나게 된다. 매티재 유해발굴은 위원회의 검토 끝에 지난 9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28일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희생자 유해발굴 대상지 적격성을 판단했다. 회의 결과,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이 선정됐고, 마침내 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자문회의에는 최인선 순천대학교 교수·박종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문수현 구례여순사건연구회 연구원·박선호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회장·최광철 광양유족회 사무국장 그리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관계자, 광양시 관계자,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관계자는 "매티재 유해발굴로 여순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사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 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석곡면 도시재생축제 주민 300여명 참여 화합 도모

곡성군의 '제3회 석곡도시재생축제'가 지역민들의 호응 속에 대항강체육공원에서 지난 3일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석곡면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해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열렸다. '그때 그 시절 Reborn-1973'이라는 주제로 주민 300여명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흥겨운 시간을 갖고 모처럼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1970년대 게임·체험 프로그램·도시재생 OX 퀴즈·추억 속의 사진관·복고패션쇼 등으로 진행된 추억의 운동회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추억의 운동회 재현을 통해 당시 청년층이었던 세대에게는 추억을 상기시키고,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는 기성세대의 문화와 생활을 느끼는 세대간 화합과 공감의 장이 되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